

찢겨진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다

2010 광주비엔날레 '특별한 전시'

찰라의 이미지는 오래 기억되며, 때론 하나의 예술품이 된다. 어둠 속을 뚫고 가는 반딧불이 처럼 폭압의 거리를 행진했던 고 이한열의 영정사진과 체 게바라의 주검 사진은 인류역사가 담긴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다.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가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인 올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최병수의 '찢겨진 이한

체 게바라의 주검 이한열의 영정 등 역사적인 순간들

열 영정'이다.

이한열의 영정은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현대사의 기억'이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이한열의 장례식에는 100만명이 달하는 추모 군중이 모였다. 군중의 앞에는 최씨가 그린 '이한열 영정 곁에 그림'(234×177cm)이 선봉을 섰다. 하지만 장례식 후 연세대에 보관됐던 이 영정은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지고 말았다.

현재 최씨는 여수의 한 섬에 머물면서 그날의 영정 곁에 그림을 복원하고 있으며, 완성된 작품은 당시와 똑같이 트럭에 부착해 전시관에 선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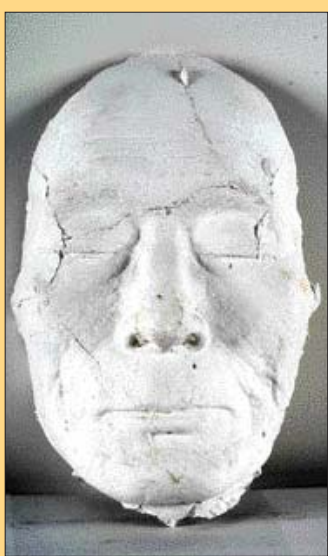
레안드로 카츠(아르헨티나)의 영상작품 '당신이 날 사랑할 날'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레안드로 카츠의 영상작품 '당신이 날 사랑할 날'



앤디 워홀 '캡슐 27번'



오운 '데드마스크'

남미 혁명영웅 체 게바라(1928~1967년)를 살해한 볼리비아의 바리엔토스 장군은 그의 주검을 공개한다. 공개현장에서 사진가 프레디 알보르타가 찍은 체의 사진은 남미 혁

명의 사진가들이 62년 동안 한 사람의 모습을 영글어 담은 이색 작품 '통병체가 발견한 앨범'은 한 개인과 사진 예술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다.

중국인 예징부가 지난 1901년 런던의 한 스튜디오에서 첫 촬영을 한 뒤 해마다 한 차례씩 사진가들이 찍은 자신의 사진을 앨범에 보관했고, 이를 통병체가 발견해 이번 전시에서 소개한다.

한 인간이 늙어가는 모습과 옷의 변화 등 사회 풍속도를 살펴보는 것

사진·영상·조각 예술 작품에 담아 시대와 일상 추억

도 흥미롭지만 시대에 따른 사진 예술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부모를 소재로 한 '시대 담기'도 눈에 띈다. 민중미술가 오운은 현대사의 질곡을 주름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찾아냈다. 오운은 소설 '갯마을'의 저자이기도 한 아버지 오영수의 '데드마스크'를 통해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한 예술가의 초상을 보여준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생전에 온갖 종류의 기념품과 잡동사니로 채운 600개의 타임 캡슐을 모았다. 이번 전시에는 앤디 워홀이 자신의 어머니 유폴만을 모은 '캡슐 27번'을 전시한다. 가공되지 않은 '날 것' 상태의 물건들을 통해 한 인간이 살았던 시대를 기억하고, 그 일상을 추억하는 작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 음악에 빠졌네...

광주극장 12일부터 '엘 시스템아' '퀸 락 몬트리올' 등 4편 상영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음악영화 4편을 만날 수 있는 '음악영화에 빠졌네!'가 오는 12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상영작에는 음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실황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도 있다.

수십만 아이들의 운명을 바꾼 베네수엘라의 음악 학교 '엘 시스템아'의 기록 같은 실화를 그린 다큐멘터리 '기적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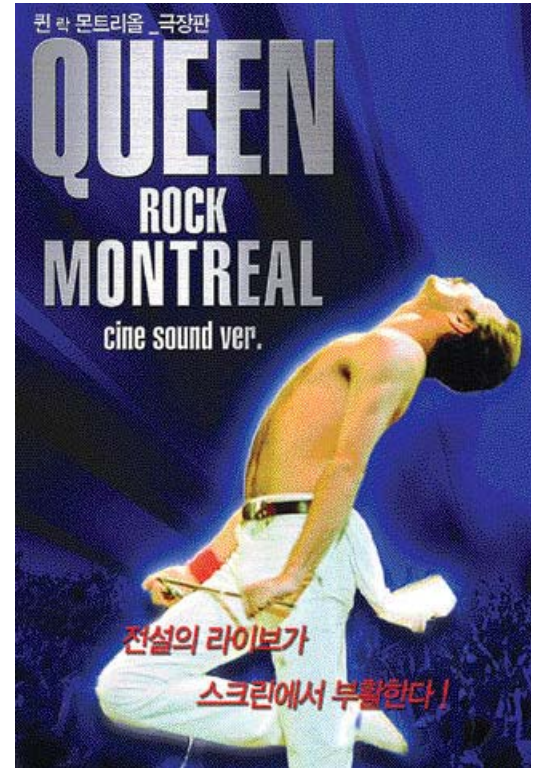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오케스트라가 전국 200개 센터와 30여 만 명의 학생을 거느린 위대한 음악 학교가 되기까지, 그 아름다운 기적의 탄생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엘 시스템아의 상징적 존재인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지휘자 투다델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브록백 마운틴', '색·계'의 이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테이킹 우드스타'는 20세기 문화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 '우드스타 페스티벌'의 탄생 실화를 그린 영화다. 1969년, 아무도 몰랐던 촌동네에서 우연히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무려 5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모여 한바탕 난장을 벌인 그 마법과도 같은 과정을 사실적인 영상과 유쾌한 관점으로 그렸다.

퀸의 공연중에서도 최고의 공연이라 평가받는 1981년 몬트리올에서의 공연 라이브 실황을 담아낸 '퀸 락 몬트리올'을 보고 나면 가슴이 쿵쾅거린다.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프레디 머큐리의 매력과 'We Will Rock You', 'Love Of My Life', 'Bohemian Rhapsody', 'We Are The Champions' 등 히트곡을 함께 따라부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기타의 신'으로 불리는 제프 벅의 공연 실황을 담



'퀸 락 몬트리올'

은 '제프 벅 토니소트 라이브' 역시 놓치지 아까운 작품이다. 특히 에릭 클랩튼과의 특별 협연과 객석에서 연주에 심취해 있는 로버트 플랜트, 지미 페이지, 본 조비 등 유명 뮤지션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시간표는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cino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낮에 도심서 쇼팽을 만나세요"

'피아노 시인' 쇼팽 탄생 200주년 공연

KBS 클래식 FM ... 13일 금호아트홀

올해는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KBS 클래식FM은 이를 기념해 지난 3월부터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마티네 콘서트-한낮에 만나는 쇼팽'을 진행하고 있다.

KBS 클래식FM은 13일 낮1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광주 클래식 팬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이 시리즈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음악가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와 실내악을 위한 대표곡을 한낮에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회로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나 저녁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부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플루티스트 배재영과 피아니스트 유지수씨가 출연해 쇼팽의 유일한 플루트곡인 '로시니 주제를 의한 변주곡'과 플루트로 편곡된 쇼팽음악,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왈츠곡 등을 들려준다.

KBS 클래식FM 홈페이지(www.kbs.co.kr/1fm)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실황은 20일 오후 1시 KBS 클래식FM을 통해 녹음 방송된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호재 개인전 '유토피아를 꿈꾸며'

12~18일 광주신세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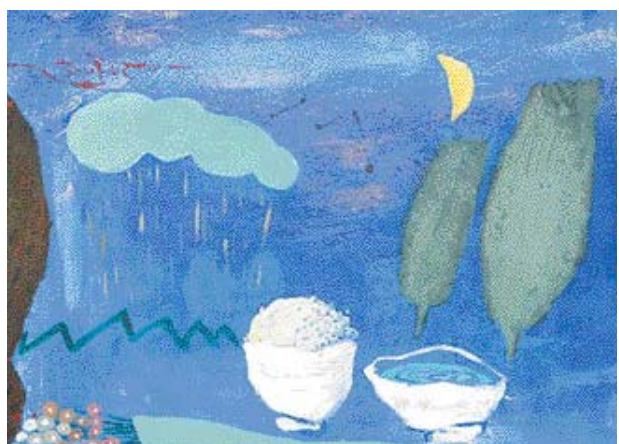
서양화가 신호재씨가 오는 12~18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신씨는 이번 전시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며'를 주제로 환상적인 청색으로 하늘, 산 등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상징들을 담아낸 신작을 선보인다.

가슴에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처럼 불규칙하게 그려진 무수한 격자무늬를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미술평론가 정금희(전남대학교수)씨는 "무한한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의 소중함을 상징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전남대 미대와 조선대 대학원 출신으로 가산화랑 기획초대전, 한국회화 조병전을 열었고 국제현대 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억'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37-9946 (광주) / 062-2237-9970 (부산)

수원점: 061-752-9940 (수원) / 061-262-9700 (대전) / 061-851-2422 (대구)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탈 하우스 거 머리의 카바리에 있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 구역입니다. 흡연객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 출입하십시오. 담배꽂이 등 지정된 구역에 버리지 않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로 111-1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탈 하우스 | 전화: 525-2111